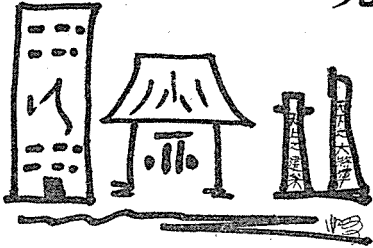


現代建築과 古建築



1. 처음에

現代建築 特히 우리나라의 建築은 只今 어디에서 있는가를 살피고, 앞으로 나갈 옳은 方向을 내다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興味롭고 간절한 希願도 별로 있을 것 같다. 이러한 希願이 올바른 것이며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별문제로 하고라도 여태까지 세워 살고 있는 수많은 건물들을 어떠한 類型的, 統計的 또는 方向性을 가려 共通點 近似點 等に 注意하며 建築的 系譜를 꾸며보고 싶은 생각도 간절하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 놓은 建物들을 國際潮流나 國家社會에 비추어 그 合理性과 經濟性, 造形創造와 安全耐久 等に 對하여 再評價한다면 어느 程度의 評價가 될 것인지 評價基準을 세울 수만 있다면 이 또한 興味로운 일일 것이다. 또 우리의 前世代, 前世紀에 이루어진 建物들은 現在 우리에게 어떠한 意義와 價値를 남겨놓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도 重要한 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現代 建築도 豐富한 內容, 多方面한 種類의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國家社會적으로 世界 어느나라 못지 않게 大躍進을 보이고 있다. 技術面에서도 多彩로운 新材料의 量産과 細分된 機械化 施工에 그 企劃도 相當한 發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國際의 先導나 先驅는 될 수 없으며 諸外國의 企業技術의 受入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勿論 어느 工業部門에서는 가장 앞선 일도 있기는 하지만 大體적으로 뒤떨어져서는 안될 달음질을 하고 있는 現實이 아닌가 한다. 특히 建築 技術面에서도 先進各國의 例를 본 삼아 計劃하고 實踐하는 段階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몸부림속에 우리建築은 國際的 舞臺에 巨步를 내 더디게 되었고 또 이제부터 눈부신 活躍期가 온 것이며 어느나라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아니할 決意와 覺悟가 여러 建築 同人의 마음에 가득차 있을것으로 믿는다.

國際적으로 脚光을 보게된 우리의 建築도 우리의 것

張 起 仁

으로 表現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나타내고 우리만의 것을 具現시킬 念願도 뒤따르고 있다. 이제까지 무제한 남의것을 받아드린것에 對한 反省期에 이르렀다는 徵兆이며 또한 當然하고도 正當한 姿勢일 것이다. 여기 내것을 具現하는 첫 過程으로서 代代로 물려받은 건축 即 古建築을 살피보게 되는 것이다. 古建築이 지니는 眞意나 價値觀은 보는 角度에 따라 다르겠지만 建築人 으로서는 文化財的 造形藝術의 價値보다 앞서 建築工學으로 把握하여 建築技術적으로 判斷되어야 할것이다. 또 現代建築과 古建築은 距離가 멀면서도 恒時 對照的으로 念頭에서 생각하는 것은 내것을 찾기위한 엄숙한 念願에서 온 것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여 韓國建築을 韓國이란 이름으로 世界各國에 내세울수 있다면 그 建築이 表現하는 정신과 모습을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의 새로운 姿勢를 確立하기 爲한 反省精神이라고 보아진다. 또 이러한精神속에 남의것을 배우고, 받아드리며 消化시키면 내것이 생겨 날 수 있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意義와 目的을 갖고 古建築을 觀察하고 研究하여 傳來의 建築藝術이나 建築技術의 奧妙함을 터득하여 새로운 建築創造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特別한 形式라 傳來의 外觀을 要求하는 建物를 除外하고는 現代建築에 古建築을 採用하거나 復原 復古式으로 하거나 現代建築에 不合理한 古建築을 그대로 導入하거나 適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 새 時代 새 技術을 無視하여 木造나 石造의 古典術法을 固守하거나 追從할 아무런 意義도 根據도 없는 것이다. 다만 우리體質이나 靈感에 맞는 것을 만들기 爲한 한 方案으로서 오랜 歷史를 지닌 古建築을 現代建築에 展開應用 할 수 있는 部分을 찾아 보고, 또 過去의 建築過程을 理解하므로써 現代建築에 對한 우리의 精神이나 體感을 現代建築에 부어 넣는데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傳統 因習 慣例를 極히 尊重하는 어떤 種類의 建物은 過去에 살아야하고, 지난 날의 形式을 따르며, 늘 보아온 外觀을 無上으로 하기 때문에 古建築을 適用하며 또 그를 서슴치 않고 模倣하고 있다. 이것도 따져

보면 지나친 保守觀念에서 온 것이며 또한 安易한 建築 計劃 手段에서 온 것이라 하겠다.

2. 現代建築의 過程

우리나라 現代建築의 過程을 時期的으로 區分한다면 韓未을 前後하여 海外文物進入이 盛行될 때에 一大 轉換期에 이르렀고 解放을 맞이하여 發展初期에 到達하였으며 그間 20餘年 後進性을 脫皮하고져 온갖 힘을 기울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韓未의 以前과 以後의 建築의 變遷이나 變貌를 되서 거 보면 國家社會의 新潮流에 따라 다음과 같이 革新되었다.

가) 建物自體의 內容은 過去의 國內의 地位를 벗어나 國際의 地位로 進出함에 따라 建物は 公共性的의 擴大規模의 増大를 보였고,

나) 材料는 國內品을 증가하는 新規 外來品이 進入하였으며, 技術은 在來 建築術과 判異한 西歐式 木構造 石構造를 뒤따라 鐵構造, 콘크리트構造이 新技術이 導入되어 建築 生産 手段에 大改革을 보았던 것이다.

다) 工法에 있어서도 材料·技術·生産手段의 革新으로 飛躍의 發展을 보았고, 木造建築에서 西歐式 木造術과 石造 鐵造 또는 철근 콘크리트造의 새로운 構造 工法으로 舍新되었으며 木手도 日本 木工術을 加味한 西歐式 木工術로 轉換하였다.

라) 建築 計劃 設計에 있어서는 社會의 革新과 더불어 材料 構造 技術 生産 方法의 改革에 따라 一大 革新的인 向上을 보였고 傳承 踏習의인 建築의 概念도 手段도 달라졌다. 이처럼 計劃 設計에도 在來의 術法을 벗어나 西歐式 工學의 理論의 基礎위에 서서 發展向上의 一步를 내 딛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轉換期과 革新期사이에 많은 苦難을 겪어야 했다. 우리나라가 國際的 舞臺에 서게되자 日本의 魔手는 우리를 靑黑에 빠드렸으며 이때부터 우리는 제 것을 버리고 日本의 것을 따르되 直接 西歐式 技術이나 手法를 導入하는 것도 許容되지 아니하였다. 말하자면 西歐文化도 技術도 日本에서 消化된 것 만이 韓國의 땅에 뿌려졌다. 그러나 뜻있는 先學者 先覺者 몇분은 海外로 나가 直接 歐美式 建築工學을 專功하고 歸國하였으니 日本人들의 排他的인 立場에 눌려 버림을 받은 일도 있다. 이러한 까닭에 自己 나라의 것을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싫은 체 해야했고, 버릴 수도 없으면서 견뎌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世俗속에 建築界의 先學者 先覺者 여러분은 建築工學을 專功하였으며 우리 또한 그다음을 이어 日本建築과 技術을 따랐다. 勿論 이동안 日本人들은 海外學術과 技術에 힘을 다하여 受取하였고 또

그 消化에도 무진 노력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되어 건축은 우리의 손을 벗어났고 日本人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建築을 일삼아 殖民地의인 政策에 韓國建築이란 存在조차 없어진 것이다. 다만 踏習의인 住宅建築에 過去의 傳統과 規範을 이어 그 命脈을 維持하여 왔다. 이를테면 住居生活에 新文明의 諸要素를 導入하고자 하여도 日本의 諸條件이 先行되어야 했으며 또 一部에서는 너무나 保守의이어서 發展은 저지되었고 오히려 萎縮된 감도 있다. 또 新興建築에는 日本의 要素가 그 殆半을 차지하였으며 殖民地 建築으로 韓國建築을 埋葬하여 버렸으며 侵略的 權限과 歪曲된 手法으로 曲解된 韓國建築을 퍼면서 韓國 建築文化財까지도 저희들의 解釋이나 숨겨나름으로 取捨하여 韓國의 傳統이나 因習 慣例 등은 거의 默殺하는 態勢로 다루어 解放의 날을 맞자 그들은 물러나게 된 것이다.

鎖國의이며 傳統과 保守를 자랑삼은 이나라의 建築도 世界文物의 交流와 國際潮流에 발 맞추어 새로운 색이들 무렵 모진 그들의 손에 문질러지고 그 뿌리조차 살아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韓國建築의 過去와 現在는 遊離되고 系譜도 過程도 아무 連關이 없는 別個의 建築形式으로 轉落되어 왔던 것이다.

二次大戰 後의 國際潮流나 解放 後는 社會·經濟·科學·文化 그 어느 면이고 모두 눈부신 變貌와 改革, 進取와 消化, 發展과 安定에로의 旋風속에 휘말리었고 建築도 그 골레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제 우리는 國際的 位置에서 中國·日本·美國·英國할것 없이 그 어느나라의 建築的 要素라도 받아 들일 用意과 開放의 矜持가 必要하며 또 國際적으로 손색없는 韓國建築을 創造하여야 할 段階에 이르렀다.

3. 韓國建築의 現位置

解放을 맞이하여 韓國은 獨自의인 立場에서 自意識과 自主性을 誇示하면서 남의 것이건 내 것이건 따질 겨를도 없이 建設의 意慾에 市中에는 許多한 建物들이 櫛比하게 일어섰고 6·25란 破壞는 이를 더한층 拍車를 加하였다.

日本의 文化制度아래 呻吟하던 韓國의 建築은 삭도 뿌리도 없어진채 또 너무나 異質의인 美國文化의 諸事項을 뒤 따르면서 눈부신 建設만이 자랑스러웠고 그것으로 滿足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生産한 材料와 우리가 가진 技術으로써 大規模 建築이나 超高層 建物도 能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自信과 世界 어느나라에도 못지않는 學術과 技術을 가진 것이라 自負하게 되었다. 數 많은 建物들이 나날히 솟아 오르고 있으며 앞으로 大盛況을 이룰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러나 이

중에는 海外技術을 導入하여 이루어진 建物들도 許多하다. 이 海外技術은 우리에게 새로운 建物の 構造工法을 알켜 주었고, 또 많은 經驗을 쌓게 하였다. 이제는 우리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 것이라 믿고 싶다. 그러나 또 한편 政治的 脆弱性和 經濟的 貧困性이 相伴하는 가운데 海外技術의 結果만을 取得하기에 汲汲하여 要求되는 建物の 成果만을 받아들일 일도 있다. 돌이켜 보면 工場 發電所 廳舍 等等의 建築을 海外技術로 이루어 놓고 보다 더 좋은 建물을 짓기 爲하여, 또 海外技術을 빌려야 된다는 思考方式은 삼가야 될 것이다. 國內技術로도 能히 따를 수 있는 것을 남의 힘을 빌려야 한다면 이 나라에는 무엇이 남을 것이며 어떠한 發展이 있을 것인가 앞날의 向上을 爲하여서는 덜 좋은 건물이 혹 失敗作이 되더라도 우리 손으로 해야 옳지 아니할까 當局의 선처를 바라는 바이다. 이에 여러가지 要因으로서 韓國技術은 未熟하여 믿음성이 없고 綜合技術이 必要함에도 不拘하고 여러 個個의 技術部門의 合力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短點도 있고 韓國人의 손은 헐값으로 外國人의 손은 고가로 하여야 된다는 自己劣等 意識등이 있다. 그러므로 韓國技術에도 제값을 다 주어 國際水準에 떨어지지 아니할 內容을 갖출 수 있는 期會와 充分한 研究檢討가 이루어지는 條件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번 海外技術로 이루어진 類型的 建物は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도록 企業人이나 技術人은 다 같은 뜻으로 앞날을 建設해야 할 것이다.

4. 現代韓國建築의 方向

現代 韓國建築의 規模는 類例없이 增大되고 公共奉仕의 地位로 向上되었으며 材料나 構造工法도 그와 同時에 飛躍적으로 發展되었다.

재료는 合成樹脂製品과 아울러 鐵材에 代身하는 高強度의 輕金屬材가 登場되었는가하면 鑄造의 콘크리트의 時期를 지나 既成製品의 時代가 되었다. 構造工法도 人力에서 機械力으로, 個別生産에서 大量短期生産으로 轉換되었다. 이제 우리는 新材料과 最新 構造工法에 따라 任意 自由로운 表現과 獨創的인 手法를 驅使할 수 있는 時期에 到達한 것이다.

現在の 建物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表現手段이나 構造方式에 있어서도 世界의인 類型을 이루고 있으나 그런중에도 造形 意匠面에서 新進建築家의 獨創的인 意慾과 嶄新한 技巧를 具現한 建물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一部는 海外建物の 移植이나 흉내로 그친 것도 있다. 이러한 理由中에는 外國建築雜誌나 寫眞 畫報等を 參考로한 設計手段에서 온 것이며 되도록이면

避하고 싶은 일이다. 이때라도 寫眞이나 畫報만을 參考로 할 것이 아니라 實物을 보고 現地의 狀況을 느낄 수 있으면 좀더 내것으로 消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表現이, 우리의 內容이 必要하다고 절실히 느끼며 여기에 加一手하여 韓國的인 要素와 面貌를 지닌 獨創性있는 建물이 出現하기를 바라 마지 아니한다. 여기에 過去를 돌이켜보아 내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古建築을 研究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現代建築과 距離가 크게 벌어진 古建築은 現代建築에 그 어느것도 不合理하며 異質의이어서 내것을 찾기에 不可能한듯 하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또 仔細하게 이를 觀照하면 線·面·空間할 것 없이 여기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獨創的인 靈感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勿論 오늘의 建築은 韓國的이라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世界觀的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韓國建築의 創意性은 韓國에서 찾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기 古建築에서 이를 찾아보고 現代建築에 展開하여 韓國獨自的인 造形과 合理的인 內容을 具現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길이 바로 古建築에 눈 길을 돌리는 하나의 根本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다고 하여 必要하지도 어울리지도 아니하는 匠手法로 古建築을 無意味하게 適用하거나 模倣하여 서슴치 아니하는 態度는 安易한 建築設計手段이며 이 또한 反省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5. 韓國建築의 理解

現代建築을 꾸미는 同學 建築人들에게 古建築을 研究하여 韓國의 性格을 뚜렷이 하라는 것은 아니며 또 반드시 그럴 必要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古建築에 뜻을 두거나 素養으로 삼고져하지 아니하는 분이라도 古建築에 對한 올바른 姿勢와 理解로 이를 注視하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韓國的인 要因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現代建물이 木造 콘크리트의 建物の 外形을 따를 理由도 必要도 없는 것이다.

이방에 서구식 양복을 입고, 중국음식을 먹으며 일본 가요를 부른다고 하여도 수치롭게 여기지도 옳지 못하다고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다만 公的으로 韓國的인 生活法式이라기에는 傳來의 生活方式과 너무나 다른 點이 있다. 그렇다고 韓國的인 生活이 무엇이나 하여도 서슴없이 答이 나올수도 없는 것이다. 너무기 思念 精神面에서는 勿論 建築에서도 韓國의 傳統이나 形式을 端的으로 抽出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古建築에 對한 傳統形式 造形美의 再發見이 必要하며 그 分析研究가 있어야 하겠다.

現代建築에 古建築이 그대로 再現되는 일은 特別한 用途의 建物을 除外하고는 없을 것이지만 古建築의 細部나 意匠手法에 있어서는 이를 抽出 展開시켜 強調하고 昂揚하면 韓國建築形式의 再出發點이 될 것이며 現代建築의 方向의한 道標도 될 수 있을 것이다.

韓國古建築은 現代的으로 展開 適用시키려 하여도 그 實効性和 構造性에 있어서는 따를 수가 없지만 內在的 또는 細部의 手法에 숨겨져 있는 意匠이나 技巧을 抽出하여 그 精粹를 얻는다면 이것은 世界 어느 나라에도 없는 創意性이 發揮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또 西歐式 意匠手法만으로 滿足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韓國固有의 建築細部 및 造形手法를 韓國古建築에서 찾아 이를 發展시키는 것도 意義가 있는 것이다.

6. 結으로

現代建築에 無意味 無批判하게 古建築의 一部를 適用하거나 復原復古式으로 하는 過誤는 없어야 하겠고 無約定 外國의것을 본따거나 그 特有의 모습이 풍기는 것도 삼가야 하겠다. 우리는 高尚한 精神과 創意의인 숨겨져 造形藝術과 科學技術의 새로운 길을 開拓하여 할 것이다.

아무리 韓國의인 傳統과 樣式이 高唱되어야 하는 建物이라도 古代形式이나 古式術法으로 하여서는 時代錯誤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며 앞으로 建設될 公共建物이 韓國古建築(木造形式)을 따르던가 옛날手法(手工業式)으로 한다는 杞憂는 없어야 하겠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여기에 古建築의 참뜻을 올바르게 理解하고 現代建築의 方向을 바로 잡아 새해를 엮어 나기를 바란다.

(38페이지에서 계속)

